

1. 감각적 이미지

유형 : 역대 수능, 모평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묻는 문제 총 집합

역대 수능, 모평 출제 횟수 : 24회+α

출제 경향 :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푸른, 숲), 청각(노래, 휘파람, 새 소리), 촉각(따스한, 차가운), 미각(달콤한), 후각(향기로운)’ 등과 같이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이미지를 말한다. 수능에서는 ‘시각 이미지 > 청각 이미지 > 촉각 이미지 > 후각, 미각 이미지’ 순으로 빈출된다. 어떤 시어를 읽었을 때, 그 형태나 모습, 움직임, 색깔 등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된다. 어떤 시를 읽었을 때, 그 시에 있는 ‘구름’이라는 시어 하나만으로도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능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없는 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즉, ‘시각적 이미지(혹은 감각적 이미지=감각적 표현=감각적 언어=감각적 심상)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선지가 있다면 맞을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면 된다.

사례1. 2010 수능 32번 문제 ③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선지

③ (가)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 분석 : ‘흐르는 빛,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 먼 하늘 한 개 별빛,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의 시어에서 시각적 이미지(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대상의 운동감은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의 시어에서 나타난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나) 지리산 중 /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올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 그 힘센 물줄기가 /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죽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삐죽새. -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지문| ③ (나)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 분석 : '삐죽새 울음'은 청각적 이미지, '삐죽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빛깔로 남아'는 공감각적 이미지(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다. '강이 열리는 것,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 등의 시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운동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다)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곰 좇아다니노

- 송순, .면앙정가. -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지문| ③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 분석 : '기러기가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노화를 사이 두고 울면서 쫓아다니는' 모습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알 수 있다.

사례2. 2010 06 모평 31번 문제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1지문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 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선 듯, 우러러 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쪼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점을 찍듯 열을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으크린 듯 엮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양들이 홀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 홍인우, 관동록 -

1선지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 분석 : 위의 지문을 보면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에 대한 묘사가 쓸 데 없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밑줄 친 ‘ ~ 하는 듯, ~ 하는 듯’ 이런 구절 전부가 천봉만학의 형상 묘사(시각적 이미지)이다. 고전 시가에서 자연 경치 묘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 읽지 말고 ‘아 천봉만학에 대한 경치 묘사구나’라고 이해하고 빨리 읽거나 스킵하면 된다.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1지문 (나) 소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 정양스 진혈터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다. /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쥘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1선지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 분석 : 위의 지문 역시 ‘ ~하는 듯, ~하는 듯’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진혈대에서 바라본 산봉우리들의 모습 묘사(시각적 이미지)라고 보면 된다.

사례3. 2011 06 모평 19번 문제 ④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 어디로 갔나, /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다.
 나는 풀이 죽는다. /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선지|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 분석 : 위의 지문에서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 = 후각적 이미지' '메아리,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 청각적 이미지,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 시각적 이미지'라고 보면 된다. 화자의 현재 상황은 '이 사람은 말이 없고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리는 메아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시적 화자의 곁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쓸쓸한 처지는 '어둠, 비'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부각된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어두운 방안엔 /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 애처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선지|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 분석 : 위 시는 ‘어두운 방안, 빼알간 숯불, 붉은 산수유 열매, 눈 = 시각적 이미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 촉각적 이미지’ 등이 드러난다. ‘붉은 산수유 열매, 눈, 서늘한 옷자락’ 등은 서른 살의 화자가 유년 시절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감각적 이미지이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 다 / 어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선지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O)

※ 분석 : 위 시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바다,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화자는 당신이 계신 곳을 ‘서해(바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당신이 계신 곳인 ‘서해(바다)’에 대해 그리움과 거리감을 느낀다.

사례4. 2012 수능 33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 구두 밑바닥에 /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 에서 /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글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선지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 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 하고 있다 (O)

※ 분석 : 위 시는 ‘강물 소리 = 청각적 이미지,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 흰 눈 속, 흐린 불빛 = 시각적 이미지’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선지|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 하고 있다 (O)

※ 분석 : 위 시는 ‘진달래 향기, 보리 내음새, 종달새 노래 = 청각적 이미지’, ‘하늘 저 빛깔, 금잔디 너른 벌, 버들밭 실개천 = 시각적 이미지’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사례5. 2012 06 모평 21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A)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B)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맞고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엇을 하려고 주야에 흐른다 /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선지| ②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O)

※ 분석 : (A)는 ‘소낙비, 샘물 = 시각적 이미지, 발등에 붓는다 = 촉각적 이미지’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B)는 ‘시내, 시냇물이 흐른다 = 시각적 이미지’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사례6. 2008 09 모평 13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가)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

|지문|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 노령 :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 키운.
- * 아무을 만, 니코리스크 :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롱한 : 춥고 차가운.

|선지|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 분석 : 위의 지문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장면을 초점화하여 ‘울음,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의 청각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장면의 초점화’라는 것은 어떤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문학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머릿 속에 생생하게 그려질 정도의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는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갹(坑) 속 같은 마을. 풀깎,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
 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꺾기도 하고 고구마를 꺾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
 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지문|

|지문|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받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 월훈 : 달무리.

|선지|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 분석 : 위 지문은 ‘마을’의 모습을 초점화하여 ‘함박눈이라도 훑날리는지,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 빛’ 등의 시각적 이미지, ‘귀뚜라미는 울지요’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례7. 2008 06 모평 14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 세상은 회개,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선지| ①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O)

※ 분석 : ‘하이얀 여울턱, 번쩍이며 오는 아침 = 시각적 이미지’, ‘새벽 새가 울며 = 청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사례 8. 2007 수능 56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지(鐵天)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挿)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 위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썩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거니와,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꽃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그리하여 지나간 겨울밤은 어느덧 밝을 녘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단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삽한즉 : 의문을 제기하니.
- * 고담 책 : 옛날이야기 책.

|선지|

⑤ 질화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

※ 분석 : 위 지문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따뜻한 토장찌개’ = 촉각적 이미지, 『천자문』을 읽는데,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 = 청각적 이미지,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사례 9. 2006 06 모평 15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중략)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중략)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멍멍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北魚)」 -
	(다) (중략) 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선지| ⑤ (가), (나), (다)는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O)

※ 분석 : (가)에서는 ‘새파란 초생달 = 시각적 이미지’, ‘시리다 = 촉각적 이미지’가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나)는 ‘귀가 멍멍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청각적 이미지’, (다)는 ‘누룩을 디디는 소리 = 청각적 이미지’,
‘누룩이 뜨는 내음새 = 후각적 이미지’가 시상을 마무리 한다.

사례 10. 2005 수능 19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곽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선지| ⑤ ‘불타는 형상’은 ‘희망’을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O)

※ 분석 : 위 지문에서 ‘희망’을 ‘불타는 형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사례 11. 2004 09 모평 45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붕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켈록켈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붕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지문|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 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쑤셔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했다.

|선지| ② 감각적인 어휘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O)

※ 분석 : 위 지문에서 감각적 어휘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 시각적 이미지’, ‘켈록켈록 기침 =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사례 12. 2009 수능 48번 문제 ④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선지| ④ ㉠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O)

※ 분석 : ‘층암(층을 이루어 쌓인 바위)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색)을 부르는 듯’은 시각적 이미지, ‘비죽새는 슬피 울어, 두견성(두견이라는 새의 울음 소리)’은 청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사례 13. 2008 수능 15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 간-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선지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분석 : ‘날개를 접는다’는 것과 ‘물 흐르듯’이라는 표현은 시각적 이미지이다.

사례 14. 2009 09 모평 30번 문제 ④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앞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선지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 분석 : 위 지문은 ‘어둠, 비바람, 앞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가지들 휘고 꺾이는, 밝는, 꽃과 열매’ 등의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사례 15. 2006 수능 15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딩그럭 불이 /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흄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 달력.

선지 ② (가), (나), (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 분석 : 위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 주로 ‘딩그럭 불, 붉고,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하이얏다’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풍설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 ‘흄냄새’의 후각적 이미지도 드러난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올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었드리면, 나는 가슴이 올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올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선지 ② (가), (나), (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O)

※ 분석 : 위 시 역시 ‘우뚝 솟은 푸른 산, 질푸른 산,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 금빛 기름진 햇살, 흰 구름 건넌 자리 찻기는 하늘’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올어 오는 뻐꾸기, 물소리’의 청각 이미지와 ‘향기로운’의 후각 이미지도 나타난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선지|

② (가), (나), (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분석 : 위 시는 ‘저녁 하늘, 눈 날린다,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사례 16. 2004 수능 56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신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떠나면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쨍쨍, 수정 림(水晶簾) 드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쨍쨍,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쨍쨍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에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선지|

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 분석 : ‘쨍쨍, 쨍쨍’ 등의 의성어는 청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후반부에 폭포수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는 독자의 머릿속에 폭포수의 모습이 그려지게끔 하므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7. 2007 06 모평 40번 문제 ④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 지문 |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㉔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 선지 | ④ ㉔: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O)

※ 분석 : ‘어적(피리소리)’는 청각적 이미지, ‘달’은 시각적 이미지라고 보면 된다.

사례 18. 2005 09 모평 21번 문제 ③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 지문 | (나) 새해의 눈시울이 /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 선지 | ③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O)

※ 분석 : 위 지문은 ‘얼음꽃,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사례 19. 2011 09 모평 15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 지문 | (나) 적막강산
 오이발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 산에 오면 산 소리 /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 갈밭에 갈새 소리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늪은 장끼.

| 선지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O)

※ 분석 : 위 지문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데 ‘산 소리, 벌 소리, 뿔꾸기 소리, 덜거리기 소리, 물닭의 소리, 갈새 소리’ 등은 모두 청각적 이미지이다. 위 시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례 20. 2010 09 모평 23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차디찬 아침 이슬 /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 별들 춤다 얼어붙고 / 너조차 미친들 어찌랴 * 한가 : 가장 끝 부분.	- 이육사, 소년에게 -
선지	① (가)는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	

※ 분석 : 위 지문에서 ‘노래 가락, 노래하며’ 등의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사례 21. 2008 09 모평 21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 는 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선지	⑤ (나)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 분석 : 위 지문에서 ‘노랫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시의 전체 내용 중에 청각적 심상은 ‘노랫소리’ 단 하나 밖에 없다. 시에서 이 ‘노랫소리’가 언급이 되었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22. 2006 06 모평 57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미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다정가(多情歌)」 -

(나)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선지 ② 자규와 귀뚜리는 **소리로써**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O)

※ 분석 : (가)와 (나)는 ‘소리=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귀뚜리가 슬픈 소리 혼자 울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당연히 ‘귀뚜라미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는 ‘자규(두견 새)’만 언급이 되었지 ‘새 소리’나 ‘새가 운다’는 언급은 없다. ‘자규’라는 새는 그 울음 소리를 떠오르게 하는 대상이므로 ‘소리로써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사례 23. 2002 수능 39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선지 ① 무덤 주변의 스산한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 분석 : 지문에 ‘원승이 휘파람’이라는 청각적 표현이 드러난다.

사례 24. 2002 수능 40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청각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면 된다.

|지문| (다)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야 다를소냐.
 시비(紫扉)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間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선지| ② 꿩꼬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넣어 청각적 이미지도 살려야겠어 (O)

※ 분석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의 구절에서 청각적 이미지(새의 울음소리)가 드러난다.